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단군(檀君)민족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자손

[1] 은밀하게 장자상속을 단에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던 '아브라함'에게서 백세에 얻은 분처 자식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이 옮겨갔다는 사실이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옮겨지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지 아니하고 '단'에게 오셨다(창세기 49장 16-18절)는 것이 또한 성경에 뚜렷하게 씌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바로 '심판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서자(庶子)로 태어난 단군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늘에서 '이슬'만나를 내리게 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통하여 이슬 만나를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군중이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렘'이 바톤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에 군대를 4군으로 조직하였는데, '브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를 합쳐서 제1군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를 합쳐서 제2군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 지파를 포함해서 제3군으로, '단'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 지파(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합쳐서 제4군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한 지파에서 5만 명씩 출동하여 15만 명을 1군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북지로 쳐들어갈 때 '단' 지파는 북쪽을 담당하게 되었던 고로 일명 북군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당시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즉 장자 상속을 요셉이 받은 줄로 형제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장자 상속을 빼앗기 위해서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는데, 후에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볼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갔다고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 단지파의 이동 경로

도 다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요셉을 일찍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일찍이 죽이려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공포 숨기 위해서 서자(庶子)의 몸을 이용하려고 작전을 펴셨던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본처이지만 수태하지 못하여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간청하여 자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단'이 서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야곱과 함께 계실 때 야곱이 '단'에게 장자 상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은 만약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갈 것을 알면 마귀가 죽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자에게 장자 상속을 할 줄이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분처 자식인 '이삭'에게 장자 상속을 하였고, '이삭'도 역시 분처 자식 '야곱'에게 장자 상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례를 따라서 야곱도 분처 자식에게 장자 상속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례에 따라 장자 상속을 하게 되면 마귀가 죽일 것도 하나님이 아시므로 살짝 우회 하면서 단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신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檀檀古記)'에 보면 '단군이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군이 왜 서자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첩의 자식 역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작전상 분처의 자식에게 장자 상속을 하게 하고, 이삭도 분처 자식에

게 장자 상속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빌하'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지파 때에는 '라헬'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라헬'을 엄마라고 부르고 '빌하'를 유모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3] 단지파를 동북쪽으로 보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단' 지파를 왜 동북쪽으로 보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인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고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놓아두면 모조리 전멸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쫓아내서 동쪽 끝 해돋는 땅에 옮겨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무솔리니와 히틀러, 스탈린 등이 유대인을 모조리 학살했던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마귀의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우리 민족을 동방의 땅 끝, 땅 동쪽에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4] 단지파의 동방 땅 끝의 한반도까지의 이동 경로

창상년들을 모두 15만 명씩 4군으로 조직을 하여 '가나안' 북지를 쳐들어갈 때 제 4군이 되는 '단' 지파는 북쪽을 담당했

습니다. 단지파가 가나안 최북단 라이스 땅을 점령한 이후부터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기업의 북쪽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소라' 성읍과 '마헤단'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여 단지파는 200년간 가장 강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단지파 군대 내에는 '삼손'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손' 장수를 유혹하여 삼손 장수를 포로로 잡아 블레셋 군대에 넘겼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던 사당 두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블레셋 고관 장수들과 함께 압살당하고 맙니다.

삼손이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나라는 물론 단지파 군대의 사기도 완전히 떨어져서 전의를 상실하고로 단지파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의 일입니다.

단지파가 오래 머물러 있던 땅으로 지금도 '단'이라는 지명이 시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단지파가 지금의 레바논 동쪽을 떠나 이주하고 이주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카스피 바다를 건너고 중국 북부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1~2 백년 우거하면서 기성세대는 다 죽어 그 땅에 묻히고, 제2세대는 자라면서 그곳에서 적응하여 '알타이' 언어를 배우면서 '히브리' 모국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단지파는 알타이산맥을 넘어 몽고 쪽으로 넘어와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도착한 후 대동강변에 자리 잡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고조선(古朝鮮)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5]

'1980년 10월 15일을 기해 마귀를 모조리 죽이고 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그 기간이 육천 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육천 년 만에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기면 하나님 자신도 멸망이요, 온 세상도 전멸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1980년 10월 15일을 기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최고의 붉은 용 마귀를 때려잡아 죽이고 그 후 밀실 안에서 1년간 있으면서 그다음 대장 마

귀를 죽이다가 1981년 8월에야 이 세상에 나와서 마귀를 무더기로 죽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승하여 무량대수 횡수로 새끼를 치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마귀가 꼭 차게 공격을 가해도 이긴자를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육천 년 만에 처음으로 마귀를 쳐부수고 있는 것이다.*

이기는 삶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방법

실패(失敗)는 성공(成功)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실패의 고통은 너무나 쓰라리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단번에 성공하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포자기(自暴自棄)로 인하여 재기불능(再起不能)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姿勢)가 필요(必要)하다. 그리고 그 실패의 늪에서 되도록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실패를 빨리 극복(克服)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실패로 인한 좌절은 성공을 위해 지불(支拂)해야 하는 일종의 대가(代價)이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고 자신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는 자세(姿勢)가 필요하다.
-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 연이은 실패를 맞보면 스스로에 대한 눈이 흐려지게 된다. 깊은 상실감(喪失感)으로 자괴감(自壞感)에 빠지거나,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寬大)해지기 쉬운데 현재 처한 상황(狀況)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 혼자 감당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스스로를 곤

경(困境)에 빠뜨리기 쉽다. 혼자 해결(解決)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면 의외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히 버려라.
- 이상적(理想的)인 목표만 추구(追求)한다면 현실(現實)을 놓치게 된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均衡點)을 찾고, 새로운 목표(目標)를 잡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 원인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실수를 반복(反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原因) 분석(分析)이 필요하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횡금 같은 두 번째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한 번 실패했다고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못나이가 되어 패배감(敗北感)에 젖어있기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갖는 것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 지나간 일에 미련 두지 말아야 한다.
- 실패한 과거를 곱씹으며 아쉬워하다가 현재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 쉽다. 실패의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빨리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것이 내일을 위해 낫다. 실패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실패한다. 그러므로 실패의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동방에 이주시켜 숨겨놓은 단군민족 속에서 구세주가 출현한다고 예언해 놓으셨다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동통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방인 한국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의인에게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는 말은 한국 땅에서 나온 그 의인이 굉장한 능력과 권세와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왕중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왕과 대통령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세주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향해 장래 일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의 조상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 예수의 조상 유다에 대한 말씀(창세기 49:9-10)을 보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 여기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요, '실로'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세주가 나타나기 전에 유다 자손 예수가 왕 노릇을 하긴 하지만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왕 노릇하지 참 구세주가 나타나면 왕 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 구세주가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끔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예수가 유다 자손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마귀가 작전을 꾸민 것입니다.

- 그런데 단에 대해서 한 예언 말씀(창세기 49:16-18)을 살펴보면,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도다. 단은 길의 뱀이요, 침경의 독사도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도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은 단지파 후손 가운데서 심판관자인 구세주가 나온다는 말이 됩니다. 또 '침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자를 떨어뜨리리도다'라고 한 말씀을 풀이해보면, 옛날에 지체 높은 왕들이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왕권을 빼앗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세주가 나오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짜 구세주를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부족●

2005년 8월 7일 한국을 떠나는 '우지 마르노'(62세) 이스라엘 대사의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2005년 8월 1일자 신문 내용]. 그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대왕국 시절 12개 부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 미스터리예요. 그 '사라진 부족'(lost tribe)의 성이 단(Dan)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 아님이까, 재미있죠?*"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이긴자란 세를 이긴 이긴자께서는 사망권이 신이 아니라 바람도 신이라고 한다. 바람이 이길 수 있고 사망권에 있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고로 (이긴자, 승리자)이다.*